

◆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 St, Francis Fraternity at Anaheim ◆



평화의 도구

(제 157 호)

06년 9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율리아),sfo (714)572-3035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박 영철(요한),sfo (562)867-5499
 *시도직 : 이 용석(안토니오),sfo (714)229-0914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E-MAIL

*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율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yahoo.co.kr
 *박 용원(야 고 보): jwypark@yahoo.com
 *박 영환(빅토리노): ypark98@yahoo.com
 *이 용석(안토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655@yahoo.co.kr

형제회 소식

■ 가톨릭 워커 봉사

지난 9월 3(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함께 불고기 음식 봉사하였습니다.

■ 전입 새회원 (8월)

8월 27일(일)-월례회

이 준목(바오로), 이 정수(테레사) 부부
 위싱턴 형제회 에서 전입 -환영합니다-

■ 월례회 간식 봉사

오는 10월부터 월례회 간식 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월별로 봉사자를 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봉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인숙(마리아) 자매, 문명금(테레사) 자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의 회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월례회 시간과 출석

월례회 시간과 출석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례회는 늦어도 오후 4시 정도에 끝납니다. 식구들에게는 오후 4시에 와서 픽업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 형제회 전체 년 모임

지구형제회 전체 년 모임(St. Francis Annual Regional Gathering)이 다음과 같이 있어오니 전 회원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10월 21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장 소: 토렌스 성 프란치스코 성당

2040 W. Artesia Blvd. Torrance CA 90504

-대 상: 전 회원

-기 타: 점심 각자 준비, 음료수는 제공합니다.

■ 프란치스코 영성학교 개강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준비해오던 영성학교가 지구 형제회의 정식 인준을 받아 다음과 같이 개강 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개 강: 06년 10월 7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성 토마스 성당 8호실

-정기모임: 매월 2째 토요일

-자 격: 서약자로서 형제회 추천을 받은 자

■ 형제회 의무 피정

오렌지카운티 형제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는 12월 형제회 합동으로 의무 피정을 합니다. 회원 전원은 모두 참석하며 12월 월례회도 겸합니다. 미리 예약금을 접수받고 있으며 10월까지 완납 바랍니다.

- 일시: 06년 12월 15일(금)-17일(일) 2박 3일
- 장소: 말리부 세라 피정의 집
- 피정지도: 류이규(프란치스코) 신부, ofm
- 회비: 일인당 \$180 (2인 1실)

■ 아씨시 성지 순례

오렌지카운티 형제회에서는 오는 07년 5월 이태리 로마 바티칸, 아씨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바랍니다.

- *순례 일정: 07년 5/15일-5/30일 (15박16일)
- *순례 장소: 이태리 로마, 아씨시등..
- *모집 인원: 선착순 약 35명
- *순례 안내: 유 사베리오 신부+현지 가이드
- *예상 비용: 약 \$3,200-\$3,500
- *신청 방법 및 지불 방법:
신청서 예치금 일인당 \$300 지불
- *문의사항: 오기영(엘리사벳)+오수원(바오로)
C: (714)313-8896 / H: (714)998-2898
- ☞ 순례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 FYLA 소식

*수익금 전달

지난 8월 LA 성령 쇄신 대회에서 칠락 묵주를 판매하여 수익금 \$1,558.95 이 생겼고 또한 \$2,723.50 을 기부금을 접수했습니다 이 수익금과 기부금 총액을 러시아 선교 및 한국 성모의 집에 다음과 같이 기부합니다.

러시아 선교: \$2,000.00
성모의 집: \$2,282.45

*FYLA 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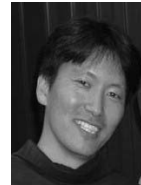
- 일 시: 07년 1월 19일(금)-21일(일)
- 장 소: 말리부 세라 피정 센타
- 대 상: 청장년

【러시아 선교】

복지관 공사중

김 용철(도미니꼬) 신부

T 평화와 선



그동안 오랫동안 복지관 공사의 현황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터 그동안의 공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1층 외벽 공사가 끝나고, 2층 바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과정으로 보면, 올 10월 중순이면 외부벽과 지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의 겨울이 긴 것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 그러기에 공사법이 좀 다른 형태입니다. 여름에 모든 외부벽과 지붕을 하고, 창문과 문을 달은 이후에, 내부에 난방을 한 후 계속해서 내부 공사를 진행합니다.

저희도 7월 말에 중국에서 20명이 입국한 이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층 건물의 외벽과 다른 부속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소독기와 주방용품이 필요합니다.

T 평화와 선

소식지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지의 복지관 건물을 완공함과 동시에 많은 비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려자 복지관은 약 40여명(첫해에만 그후에는 60-70명)의 노숙자들이 숙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식사 제공을 하는 식당을 운영해야 하기에, 많은 비품들이 요구됩니다.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한국에서(한국이 아니면 모스크바나 유럽에서)아니면, 모스크바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다. 왜냐하면 작은 도시이기에, 예를 들면, 열 옷 소독기와 같은 것들은 오로지 모스크바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비용이 엄청납니다. 아래의 비품이 많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한 개씩만 도와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주위에 나눔이 필요하신 분이나,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면 현지의 복지관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물품:

- 1) 열소독기: 현지의 복지관에서 반듯이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법적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구입처는 오로지 모스크바입니다. 구입 비용이 USD 6,000 달러입니다. (구입비용과 운반비용이 각각 반정도입니다.)
- 2) 주방용 대형 냉장고 2대
- 3) 빵 굽는 기계/빵 반죽하는 기계
- 4) 오븐: 음식하는 오븐이 필요합니다.
- 5) 싱크대 및 조리대:
- 6) 사무용 책상: 10개
- 7) 사무용 책꽂이 10개 - 직접 제작(개당 35달러)
- 8) 침대 : 약 50개 - 직접 제작(개당 60달러)
- 9) 잠옷(반바지, T셔츠): 50개 필요: 개당 20달러
- 10) 결상: 10개- 개당 35달러
- 11) 성프란치스코 상: 현지의 복지관 건물의 정식 이름은 : 성 프란치스코의 복지관입니다. 따라서 성프란치스코의 상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혹시 이곳을 방문하실 분이 직접 들고 오시면 좋는데...크기는 1m 이내의 입상입니다.
- 12) 식기 소독기
- 13) 이불: 적어도 60개 이상 필요합니다.
- 14) 식기 및 주방 도구: 약 700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15) 물론 TV 및 사무실용으로 컴퓨터 3대가 당연히 필요하지요.
- 16) 주방용 식탁- 현지 제작.. 식탁 10개 정도로 예상합니다. 나무 비용이 개당 80달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 17) 전열등: 밤에 불은 켜야겠지요. 방이 약 50개가 넘기에..물론 화장실까지 다 합쳐서...그래

도 한개당 20달러는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 돈 단위 루블로 계산하면 500루블정도..(평균입니다. 더 싼것도 있지만, 주방이나 식당에는 더 큰 것을 달아야 하니)

18) 각 방 문: 아이코..한개당 150달러씩 잡아야 하니. 50개 이상이니..계산이 안되네요.

19) 창문:

20) 주방 식기대 및 환풍기:

이 밖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시작한 이 행려자 복지관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분석이 한개의 비품만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한분이 두 개의 비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제 머리카락이 좀 덜 빠지겠지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우수리스크에서 김 도미니코 신부OFM

【묵상1】

고통은 예수님의 입맞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은 결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신이 사용만 잘 하면,

특히 당신이 그 고통을 세상의 평화를 위해 봉헌했을 때는 크나큰 사랑의 수단이 됩니다.

고통 그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나누어진 고통은

굉장한 선물이 되며 그것은 사랑의 표징이 됩니다

다.

예수님의 고통은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인 은총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고통, 아픔, 슬픔, 모멸, 외로움 등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입맞춤에 불과 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입 맞출 수 있도록
당신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은 항상

부활의 기쁨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느꼈을
때는 이제 다가올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당신을 슬픔으로 채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잊어버릴
만큼 큰 슬픔이 당신의 마음을 결코 채우지 않게
하십시오.

- 마더 데레사-

“작은 몸짓으로 이사랑을” 중에서

[묵상 2]

나를 아름답게 하는 기도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소서.
일생의 꿈은 그 과정에 기쁨을 주셔서,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소서.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
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소서.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
음이 많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
쁨이 되는 인내에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
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
서. 음악을 듣게 하소서.

햇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 기울일 줄 알게 하소서.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 가치와 모습을 빨리 알게 하시
고,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질 때도, 삶을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아하게 하소서.
삶을 잔잔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
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질서를 지키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
고,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
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